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이계훈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공군발전협회, 제12차 안보학술회의 개최

격변의 시대, 항공우주 전략과제 논의



사단법인 공군발전협회(회장 이계훈)는 5월 22일 공군호텔에서 “격변의 시대, 항공우주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역대 공군참모총장,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 육·해·공군 예비역, 학계 전문가, 방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안보학술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영상 축사, 나경원 의원은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한 행사는 갈등·기회가 공존하는 우리의 안보 현실 속에서 항공우주력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고찰해본다는 원론적 목표 외에도 우주항공청, 전략사령부, 국방혁신 등 의견이 상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주제발표,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군이 방어해야 할 범위가 하늘에서 우주로 확장됐고, 북한이 가진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특성을 가진 공군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요소가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많은 공을 들인 국가 우주자산을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동맹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 군이 우주항공청과 호혜적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손성락 참모차장은 여러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의 토대위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공군이 격변의 시대를 넘어서 전 전장영역에서 압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유·무형 능력구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선 서강대 이근욱 교수와 오현웅 한국항공대 교수가 ‘러·우, 이·팔 전쟁 중간 평가와 교훈’ ‘우주항공청 개막과 군사 분야 협력 방안’을 발제했다.

이 교수는 “격변은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전략적 무능과 기술발전 속도의 양극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실패를 타산지식으로 삼아 공군의 역할을 규정하고,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교수는 “우주 기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제기준 요구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우주 선진국 사례와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민간 협력체계

를 유지하는 것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이수훈 국방대 교수는 ‘전략사령부 창설의 쟁점과 과제’ ‘국방혁신 4.0과 공군의 임무 보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군은 각 플랫폼의 연결을 작전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오랜 기간 인식하고 훈련해왔다”며 “공군이 지휘통제 분야에서 현재의 전장은 물론 우주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국방혁신이 강조하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는 김태형 숭실대 교수, 장성규 공군우주센터장, 이철재 중앙일보 기자, 장재만 공군신기술융합팀장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慶 철원지회 창립 祝

강원도 철원군지회 창립총회가 4월 16일 철원군 갈말읍 한솔레포츠 세미나실에서 철원군 주요기관장과 내빈, 인근 공군전우회 지회장 및 철원지회 회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취임한 구한서 철원지회장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인근 지회장님들께 감사하다”면서 “회원간 친목도모 증진, 지역사회의 발전 및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공군전우회의 위상을 높이는 단체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고 이근석 장군 추모식

공군전우회 및 공군군수사령부는 7월 4일 본회 중앙회 임원, 대구지부 회원 등 45명과 대구기지 지휘관 참모 및 유가족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故) 이근석 장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고 이근석 장군 약력소개,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가, 종교 의식 순으로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고 이근석 장군은 공군창설 7인 간부중 한 분으로 공군창설에 기여하였으며, 6·25전쟁 때는 F-51D 무스탕을 타고 최초의 전투기 출격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이 장군은 1950년 7월 4일 북한군 전차대열에 포격을 가하던 중 피탄되자 적 전차를 향해 돌진하여 34세의 나이로 장렬히 산화했다.

본회 이계훈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군인출신으로서 한·미 동맹체제를 통한 전쟁억제는 물론 유사시 전쟁승리를 위해 압도적인 국방력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계훈 회장,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 초청 환담

본회 이계훈 회장은 5월 7일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을 공군호텔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본회 이 회장은 “공군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속적인 성원은 대한민국 영공수호에 밑거름으로 길이 빛날 것이며 특히 공군 하늘 사랑장학재단에 100억원을 기부해 주시고 열악한 공군부대 복지시설 개선에 크나큰 지원과 공군인터넷전우회를 운영하시는 등 공군인의 복지증진과 화합단결을 위해서도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부영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한 후 F-15K 모형항공기와 ‘나라사랑, 공군사랑’ 감사의 글 판을 제작 증정했다.

이에 이종근 회장은 “초청해 주어 감사하다”며 “공군전우회가 회원들간의 친목도모활동은 물론 공군발전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이 회장은 세계 태권도협회 평화봉사재단 총재, 대한노인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베트남 우호훈장, 라오스 일등훈장, 스리랑카 교육훈장, 캄보디아 최고훈장 등을 수상하였고 2014년 인간 상록수로 추대된 바 있다.

이계훈 회장, 광주지부 정기총회참석 격려

본회 이계훈 회장은 4월2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광주지부 2024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광주지부 정기총회에는 공군전우회 중앙회 회장, 1전비 단장, 미망인회 광주지부장을 포함한 내빈과 지부회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회장은 광주지부발전에 공헌한 임유식 부회장 등 5명에게 공로상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군전우회 광주지부에서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현역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공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회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보내면서 “군인출신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52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본회 이계훈 회장은 5월 30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152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여 김 주 소위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을 직접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신입장교들은 약 12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초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강인한 체력과 전투 지휘능력을 배양했으며, 행사는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훈시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서울현충원 합동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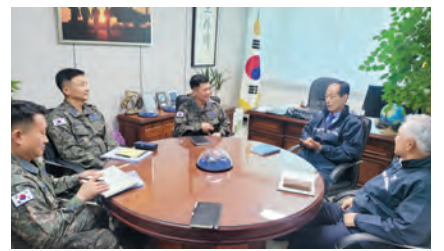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본회는 6월 5일 10시 30분 공군예비역단체인 공사총동창회, 학사장교회 및 공군전공상 유공자회 임원 등 약 90여명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충훈탑에서 합동참배를 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는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헌화, 분향 및 묵념 등 참배행사를 엄숙히 거행하였으며, 합동참배 전·후에는 신분별 또는 개인별로 연고묘역을 찾아 옛 전우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회장 취임인사차 예방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5월16일 본회 이계훈 회장의 취임인사차 본회를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 총장은 “공군전우회 및 공군발전협회 회장님으로 취임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면서 “두 단체가 공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 이 회장은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두 단체가 우리공군이 더욱 강한 공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특히, 공군전우회가 예비역 대표 단체로서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공군전우회 회장단 회의

본회 이계훈 회장은 6월 26일 공군호텔에서 본회 부회장, 감사 및 임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장 인사말, 개인소개, 임원 선임증 및 전우회 뺨지수여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 임원으로 위촉을 승낙하여주시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우회 발전을 위한 우리 회장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우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등 회장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계훈 회장, 성남지회 정례회 참석 격려

본회 이계훈 회장은 성남지회 초청으로 6월21일 성남지회 정례회(분기 1회)에 참석하여 지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성남지회 회원 약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신입회원 환영식도 함께 있었다.



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공군 인근부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회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보내면서 “공군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군본부 정책실장 내방

공군본부 김현중 정책실장이 4월11일 본회를 방문하여 본회 임원진과 함께 본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윤 우 항공우주력연구원장이 본회 활동 확대방안에 대한 기초를 설명하고, 공군 현역과 예비역간의 협조방안에 대해 상호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KB 국민은행, 공군발전협회에 발전기금 전달

KB국민은행 임원진(기관영업 그룹 대표 서영익) 5명은 5월 16일 공군호텔에서 이계훈 회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서 대표는 “공군발전협회 주요 목적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공군과 공군발전협회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 이 회장은 “KB국민은행이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후원해주고 있음에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협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KB국민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공군발전협회 후원단체로서 2018년도에 이어 기부금을 지속 후원해 오고 있다.//



공군발전협회 신임연구위원 위촉

공군발전협회 이계훈 회장은 5월 22일 본회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위원 신임 연구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강지원(국방기술품질원 AI사이버분과 위원장), 강규식(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김학준(합동군사대학교 교수), 김홍철(합참 전 비서실장), 노승환(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박기태(합동군사대학교 교수), 박수철(공군발전협회 기획국장), 박영준(777사령부 시험평가단장 역임), 이원진(Cinetworks CEO), 조보근(성무안보연구소장), 한상문(쌍용정보통신 이사), 김종석(전 기상청장), 최재동(국동대학교 학과장), 김기훈(한국구방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찬훈(충북대학교 교수) 위원이다.

이 회장은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위원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 위촉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계훈 회장, 순조회원 위로행사 참석 격려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공사총동창회 주관의 순직조종사부인회(순조회) 초청 위로행사에 본회 이계훈 회장이 참석하여 순조회원들을 격려했다.

6월 4일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순조회원중 참석이 가능한 20명과 공사총동창회 회장단이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누었으며, 본회 이 회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서도 순조회원님들이 항상 굳건하게 생활하고 계시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오셨음에 경의를 표한다”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고 말하면서 송우영 순조회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회장단 내방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김진홍 회장 외 1명이 6월 19일 본회를 방문하여 이계훈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김진홍 회장은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주요활동사항들을 간략히 보고하고, 본회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본회 이 회장은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활발한 활동 및 모교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한다”고 말했다.//



골프동호회 단체장 회의

본회 산하단체인 골프동호회는 6월25일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24명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친선운동을 함께한 후 상견례에 이어 이강욱 동호회장 인사말, 회무보고, 차기회장단 선출을 했다.

차기 회장단 선출에서는 현재 골프동호회 이용빈 부회장이 추대되어 만장일치로 동의 받았으며, 부회장에는 현재 이강욱 회장이 자청하여 부회장임무를 수행하겠다고하여 만장일치로 선임 되었으며 7월1일부터 2년간 동호회를 이끌게 된다.

이용빈(예 중위, 학사 67기) 차기회장은 “공군전우회 골프동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골프동호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중앙회 임원선임 현황

본회 이계훈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선임을 위임받았던 중앙회 임원을 2024.4.1일부로 각각 임명하였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가나다 순)

◆ 부회장 (18명) : 고석인 김석찬 김장희 김진홍 김한용 김호연 문영배 박신규 박이철 신익현 안재봉 염성진 이구목 장 군 장흥진 정주호 진호영 차주성

◆ 감사(2명) : 김영곤 박병철

◆ 이사(총 103명, 특별이사는 별도관리)

● 당연직 : 총 65명(*회장, 부회장 19명 포함, 산하 단체장 중복자 5명 제외)

- 중앙회 국장급(3명)

박수철 박창길 염규열

- 산하 단체장(5명)

박동규(유치곤장군 호국정신보존회장) 심권(공군통역장교회장)

이병권(공군인 터넷전우회 사무총장) 이옥희(조종간부회장)

정화일(군무원회장)

- 국내 지부장(6명)

강영환(제주) 김선호(부산) 김호중(대전) 남상석(대구)

손정문(광주) 최용주(인천)

- 국내 지회장 (32명)

구한서(철원) 권영화(속초) 김구식(원주) 김수영(양평) 김영준(경주)

김정수(동두천) 김철준(화천) 박갑용(사천) 박문석(성남) 반영곤

(군산) 송요정(수원) 신건영(포천) 양찬모(예천) 오기호(진주) 오정수(전주)

왕관현(평택) 은헌기(군위) 이균신(청주) 이석우(의왕) 이성배(창원)

이진권(철곡) 임현상(김해) 장호근(영월) 정순용(아산)

정호영(전주) 조동주(충주) 조봉환(충남서부) 최병훈(익산) 한상식

(문경) 한상욱(이천) 허기영(영주) 홍만진(서산) 황용기(강릉)

● 임명직(38명)

- 산하/협력단체 (28명)

김봉한 김성대 김영근 김인기 김재학 김춘동 김학권 박용서 박태혁

박평서 손우석 신상식 심준택 원종문 유만호 이성우 장호관 정명섭

정보용 정상중 정영진 정창근 조광래 조용춘 차수남 채지광 현창근

홍종화

- 산하 단체/지부(사무총장/국장 10명)

김경태(부산) 김상현(제주) 김승식(광주) 김종현 (2사)

이상목(ROTC) 방종원(항 고) 신두철(대전) 윤양로(인천)

정규채(대구) 정수일(원우)

*특별이사는 수시 변동으로 명단에서 제외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과 일본, 중국은 5월 27일 3국의 정상회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하고 38개 항목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 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6·25전쟁 74주년 기념식(사)

윤석열 대통령은 6월25일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



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3차 핵협의그룹 회의

한미 국방 당국이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6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회의는 우리 측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주재했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미는 NCG 출범 이후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우주항공청 개청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경남 사천시에서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 및 정책·사업을 통합해 우주항공기술을 개발하고,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삼았고, 영문 약칭도 KASA(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총 정원은



293명이고, 7국 27과 2소속기관으로 구성됐다. 차관급인 청장은 윤영민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개청과 함께 우리나라 우주항공 임무를 본격 시작했다.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를 집중 수행한다.

6·25전쟁 의료지원국 독일에 첫 참전기념 조형물

국가보훈부(보훈부)는 5월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독일적십자사 본부’에서 참전기념 조형물 제막식을 했다.

행사에는 정부 대표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볼크마르 쉰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 사무총장 등 독일적십자사 관계자와 6·25전쟁 때 한국에 파견된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 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독일은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시설과 인원을 파견해 2018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되면서 22번째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전쟁 당시 독일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적십자사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시설로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환자와 국내 민간환자를 치료했다. 현지 독일인의 6·25전쟁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2억1000만 원)으로 건립됐다.

강원권 첫 국립묘지 ‘횡성호국원’ 조성 본격화

강원권 국가유공자들에게 근거리 안장 서비스를 제공할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5월24일 횡성군청에서 강정애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 39만㎡(약 11만8000평)에 2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보훈부는 내년까지 설계와 인허가 용역, 토지 보상을 거쳐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11월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이다. 국립횡성호국원은 개원 기준으로 국립연천현충원(2026년 개원)에 이은 14번째 국립묘지가 된다. 국립호국원 중에서는 7번째다.

국가유공자·보훈가족 1만여 명에 무료 건강검진

6월부터 두 달 동안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이뤄진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5월 1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조해 보훈가족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중 만 20세 이상이다.

신청은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검사는 기초항목부터 간·당뇨·신장기능 검사 등 최대 67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면 된다.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 본격화



국가보훈부(보훈부)는 6월19일 전남 장흥군청에서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6월18일 밝혔다.

행사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등이 참석한다. 국립장흥호국원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산11-1번지 일원 41만3295㎡(약 13

만 평)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497억 원을 투입해 2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6년까지 국립장흥호국원 설계와 인허가 용역, 토지 보상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착공에 들어간 뒤 2029년 8월 개원한다는 구상이다.